



장보고함 1만시간 무사고 잠항 기록

지구 두 바퀴에 해당하는 8만 219km 잠항

해군 잠수함 제1호로 우리에게 알려진 장보고함 이 인수이래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1만시간 무사고 잠항기록을 달성해 지난해 12월 31일 진해에서 장보고함 잠항 1만시간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장보고함의 1만시간 무사고 잠항은 약 417일동안 지구 둘레 40,077km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 총 43,315마일(80,219km)을 물 속에서만 지낸 셈이다.

장보고함은 지난 '91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진수된 이래, '92년 10월 우리 해군에 인도되었고 '93년 6월 취역하였다.

그 후 '97년 50여일간의 하와이 파견훈련, 한미 연합 잠수함전 훈련(Subex)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수십 차례의 연합 및 단독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술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첨병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97년 하와이 파견훈련 때에는 한국 해군 최초로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1만마일(약 18,000Km)을 단독으로 잠항하였는데 이는 잠수함 운용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보고함의 1만시간 돌파를 맞아 장보고 함장인 김청량 중령은 “사방이 물로 휩싸이게 되는 잠항이라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지금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러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조함, 정비 및 교육훈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부대원들이 일심단결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잠수함의 만행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잠수함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99년 3월 서태평양 훈련에 참가한 한국 잠수

함 이천함이 실전용 어뢰를 발사하여 해상표적인 1만톤급 美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를 명중시켜 단 한 발에 격침시키는 위력을 보여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훈련 참가국 해군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2000년 6월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한 림팩(RIMPAC)훈련에 참가한 한국의 209급 잠수함이 모의 전투에서 미국의 잠수함 추적용 구축함, 대잠초계기 P-3C 등의 추적을 따돌리며, 항공모함, 함정 등 20여 척을 모의 격파하는 등 최후까지 생존해 훈련 참가국 강평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바 있다.

* 장보고함에 이어 정운함도 1999년 진해-하와이 단독 잠항항해에 성공한 바 있는 등 잠수함을 확보한 지 불과 몇 년내에 세계가 놀랄만한 작전운용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